

## 전도, 영계와 발맞추어

이소연(선문대 신학순결학과 4학년)

2018년 2학기 유럽에서 했던 선교활동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18년 여름, 학교에 다니는 중 신학순결학과와 세계본부가 함께 주관하는 선교 프로그램인 GMP(Global Missionary Program)의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실천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참부모님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신학순결학과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활동이 전도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전도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8년 8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오스트리아, 체코, 루마니아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4시간씩 대학교 또는 거리에서 하였으며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전도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생의 목적, 철학, 종교에 관한 내용이 담긴 8가지의 질문을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관, 가치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카프에 관한 팸플릿을 주면서 카프의 목적과 비전을 설명해 준 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차트 식으로 되어있는 원리강론 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카프의 메인 활동은 원리공부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다음 약속을 정해 원리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여 오스트리아에 4명, 루마니아에 2명의 전도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를 통해 느꼈던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4일 오스트리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도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의 방법도 몰랐고, 영어 실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단 한명이라도 더 만나 많은 사람을 복귀하고자 하시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Kathi를 만났습니다. 사람도 많고 정신없던 거리에서 단 10분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Kathi는 카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했고 저와 일대일 원리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영계가 있고 하늘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와 Kathi는 4개월 동안 깊은 참사랑을 나눴습니다. Kathi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늘부모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Kathi를 위한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느꼈고 함께 원리공부를 하면

서 원리를 알아가는 Kathi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주고, 주고 또 주고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해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영계가 정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간절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밝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번 선교기간, 누구보다 영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전도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날 Alessia와 Ana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15,16살의 어린 친구였지만 성숙하고 의젓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카프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그날 루마니아 카프에서 주관하는 혼동회 이벤트에 Ana를 초대했습니다. Ana는 흔쾌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각을 정한 후 카프센터로 돌아가는 길,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편두통이 있어서 유럽에 오기 전부터 걱정했었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3개월 동안에도 이 정도로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인가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났던 Ana와 Alessia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잠시 쉬면서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에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심정이 아픔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날 Ana와 함께 혼동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Ana는 카프에 관해 더 관심이 생겼고 원리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루마니아에 한 달밖에 없었지만, 그날 만났던 Alessia와 Ana는 원데이, 투데이 워크숍에 모두 참석하였고 일대일 원리공부, 카프 이벤트 등 많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리 내용과 참부모님의 삶에 대한 강의를 들은 Alessia는 저에게 원리가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필요하고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코에 갔던 경험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체코 협회장님께서 전도란 강한 심정의 자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 이유는 진리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심정의 자석에 이끌려 생긴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나의 심정을 하늘부모님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저의 선교 기간 중 마지막 한 달을 보냈던 루마니아의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첫 아침 혼동회 시간에 협회장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몸 마음 통일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기에 앞서나 스스로 하늘부모님과 하나가 되고 참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호응할 수 있는 제가 될 때 보다 원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참다운 대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대상은 서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전도란 참된 대상과 수수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 기간 성장한 부분을 내적과 외적으로 나누면 내적인 부분은 심정입니다. 전도를 통해 직접 현장을 경험하면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기쁨

뿐만 아니라 타락의 슬픔, 복귀의 고통까지 감수하셨던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나의 초점을 완전히 영계에 맞추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여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상이므로 지상이 주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 기간은 영계가 주체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의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늘부모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랑을 갚을 길은 사랑의 실천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외적으로 성장한 부분은 미래 가정연합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확신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선교 활동은 도전이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에 적응해야 했고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반대를 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원리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서 저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미래 가정연합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늘의 섭리에 동참하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부모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므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사랑입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유럽에 계신 식구님들을 통해, 전도 대상자를 통해, 수많은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저는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의 기준을 하늘부모님의 심정에 일치시킬 수 있는가? 그 심정을 중심삼은 마음이 내 생(生)에서 몸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도전 속에서도 하늘부모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부모의 심정권에 들어가면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더 간절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끊임 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 선교 기간 부모님에게 받은 무한한 사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하늘 앞에 효를 돌려드리기 위해 나의 영인체를 어떻게 성숙시킬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앙의 실천보다 빠르고 깊게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